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7.(화) 배포 시 배포 2026. 11. 17.(화) 18:00

농식품부, 겨울철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방역상황점검회의 개최

- 산란계 밀집단지 등 고위험 농장 집중 관리, 차량 소독 및 출입통제 철저
- 출입통제·소독 등 가금농장 5대 핵심방역수칙 준수 당부 및 방역 교육·홍보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'농식품부')는 11월 17일(화), 김종구 차관 주재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총력 대응을 위한 방역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.

날이 추워지고 겨울 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면서, 11월 3일 경기 연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발생* 하였다. 올해는 발생지역과 축종이 다양하고, 혈청형 2종이 동시 확인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차단 및 초동방역에 힘써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.

* '26년 고병원성 AI 발생현황(11.17일 기준) : 총 9건(축종별 닭 3, 오리 3, 메추리 2, 관상용 거위 1, / 지역별 경기 4, 전남광주 2, 인천 1, 충북 1, 경북 1)

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별 방역조치 상황을 점검하고, 축산시설·농장종사자·차량에 대한 빈틈 없는 소독과 함께 산란계 밀집단지 등 고위험지역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.

특히,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출입 전 차량·사람 사전등록과 전담관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하고, 농장의 차량 소독실태, 방역시설 적정성,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, 방역 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아울러, 농장주 뿐만 아니라 농장 종사자나 방문자도 방역시설 관리·장화 갈아신기 등 5대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·홍보를 강화하는 한편, 축산농가가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알림톡, 문자메시지(SMS)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전파할 것을 요청하였다.

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“이번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서 사전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출입이 제한된 축산차량·사람의 관리 미흡 등 기본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된 만큼, 각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”라며, “현장 가금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농장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,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”을 거듭 요청하였다.

붙임.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

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☎ 1588-9060 / 4060				
담당 부서 (총괄)	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욱 (044-201-2511)
		담당자	사무관	이현경 (044-201-2515)
고병원성 AI	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책임자	과 장	황성철 (044-201-2551)
		담당자	사무관	이주원 (044-201-255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|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

농림축산식품부

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 5가지

조류인플루엔자(AI) 예방을 위한 농장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!

1



(출입차량) 2단계 소독(1차 고정식 소독기→2차 고압분무기)
(출입자) 전용 의복·신발 등 착용, 출입 전·후 소독

2



(축사 출입) 전실에서 전용 의복, 장갑, 마스크 및 색깔이 구분된 장화 착용 후 소독 실시

3



(부출입구) 소독·방역시설이 미설치된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미설치된 축사의 뒷문(쪽문) 폐쇄

4



(농장 내·외부 및 진입로) 매일 소독 실시
(기계·장비) 반입 시 농장 진입 전에 세척·소독 실시

5



(야생동물 차단) 축사 구멍 또는 틈새 메우기, 차단망 설치·보완 등



폐사 증가,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증상 확인 즉시
방역당국에 신고 ☎ 1588-4060, 1588-9060